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하원리 출신 참여자 연구

- 『하원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

한금순*

국문 요약

본고는 제주도의 항일운동의 백미인 법정사 항일운동을 조선시대 제주도 호적중초와 연계시키는 연구이다. 법정사 항일운동 하원리 출신 참여자의 가계를 『하원리 호적중초』에서 찾아내어 분석하였다. 이는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주민의 마을에서의 위상 등을 통해 참여자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여 기록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하원리 인물은 모두 20명이다. 이 가운데 13명이 『하원리 호적중초』에 등재되고 있었다. 4명이 등재되지 않고 있고, 3명은 현재 유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인적 사항이 미비하여 추적이 불가능하였다.

호적중초에 등재된 인물 13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본인이 1회 등재되는 경우에서 부터 12회 등재된 인물까지 있었고, 부(父) 이름으로 5회 등재된 경우부터 13회 등재된 경우까지 살필 수 있었다. 가계의 등재기간을 살펴보면 1810년 『하원리 호적중초』 1권부터 등재되는 가계가 있는가하면 중간에 나타나는 가계 혹은 1회만 등재되는 인물까지 있었다.

하원리 인물의 호적중초 등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법정사 항일운동 참

* 제주대학교 사학과 강사

여자가 호적중초에 등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비롯하여, 참여자 가계의 등재 여부 및 언제부터 하원리에 살고 있던 가계인지 파악이 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간의 가족 관계가 파악되는가 하면, 항일운동 이후의 혼인관계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원리 호적중초』의 호구(戶口)가 마을 전체의 호구를 등재하고 있지 않음이 포착되었다. 호구의 의도적인 누락현상과 나이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현상도 포착되었다. 따라서 하원리 출신 참여자의 호적중초 등재 상황을 살피면 이들이 마을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처음의 의도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었다. 마을의 모든 인구가 다 호적중초에 등재되고 있다면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마을에서 소외되었거나 유랑민이라는 특징 등을 판단할 수 있을 터인데 빈번하고도 의도적인 누락현상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했다. 또한 누락되는 호구가 없다면 호적중초에 등재된 기간을 통해 마을의 토박이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또한 그 의미가 있을 터인데 『하원리 호적중초』에서 드러나는 인구와 호의 누락현상은 등재 기간에 대한 의미 판단의 근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로써 호적중초를 활용한 법정사 항일운동 참가자들의 연구는 우선 제주도 호적중초들의 호적작성 원칙과 그 특징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호적에 누락된 것이 마을에서 소외되었다는 증거이며 이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고 분석한 것은 설부른 결과 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원리 호적중초』에 드러난 법정사 항일운동 하원리 출신 참여자의 호적중초 등재 상황을 통해 제주도 호적중초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이후에 호적중초를 활용한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로 다시 접근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하고자 한다.

주제어: 하원리 호적중초, 법정사 항일운동, 누호(漏戶), 누구(漏口),
조선시대 제주도 호적작성 원칙, 김연일, 김상언, 오병운,
이달생, 이승빈, 이춘삼

I. 머리말

제주도 사람들의 삶을 축적해 놓고 있는 조선시대 제주도 호적중초를 활용하여 근대시대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제주도에는 호적중초가 많이 남아있고 이를 근대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는 법정사가 위치한 도순리를 비롯하여 영남리, 월평리, 중문리, 하원리 등 좌면의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이들 마을 중에는 도순리, 월평리, 중문리, 하원리 등지의 조선시대 호적중초가 남아있다.

본고는 『하원리 호적중초』를 활용하여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 가계를 찾아 보려한다. 이를 통해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주민들의 마을에서의 위상이나 가족별 참여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중 가장 많은 이름을 남기고 있는 하원리 인물의 호적중초 등재 상황을 먼저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하원리는 법정사에서 출발한 거사 참여자들의 집합지이기도 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중 하원리 인물들의 호적중초 등재여부를 살핀 방법은, 우선 법정사 항일운동 유족들의 인적 사항을 기반으로 부모와 조부모의 제적부를 살폈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성명을 토대로 하여 호적중초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호적중초는 마지막 36권에서부터 시작하여 1권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제적부를 통해 확인된 유족들의 부모 혹은 조부모의 성명을 가지고 호적중초에서 동일 성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호적중초 상의 인물이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와 동일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었다. 이로써 이름만 같은 다른 인물일 가능성을 재차 점검할 수 있었다. 호적중초 상에 나타나는 인물이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인물인지 아

닌지 검토를 위하여 제적부에 나타나는 조상 혹은 형제들의 성명과 비교하고, 본(本)이나 처(妻)의 성명, 그리고 처(妻)의 부모 성명 등과 대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하원리 인물들의 혼인관계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항일운동 이후 거주지 이전 실태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원리 호적중초』의 호구(戶口)가 마을 전체의 호구를 등재하고 있지 않음도 포착되었고 등재시기가 출생 직후가 아님도 포착되었다. 이로써 호적중초를 활용한 법정사 항일운동 참가자들의 연구는 우선 제주도 호적중초들의 호적작성 원칙과 그 특징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호적에 누락된 것이 마을에서 소외되었다는 증거이며 이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고 분석한 것은 선부른 결과 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원리 호적중초』에 드러난 법정사 항일운동 하원리 출신 참여자의 호적중초 등재 특징을 제시하고, 제주도 호적중초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즉 마을 전체 호구를 등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개인별 등재 시기 특성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에 호적중초를 활용한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로 다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법정사 항일운동과 하원리 출신 참여자의 활동

김연일 등 법정사 승려들은 1914년부터 법정사에서 활동하였으며 1918년 4월경부터 법정사 항일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¹⁾ 국권회

1) 한금순의 논문이 있다.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제주대학교대

복을 목적으로 내걸고 제주도내의 일본인을 몰아내자는 격문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본고가 하원리를 주목한 이유는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기록 중 하원리 인물 인명이 가장 많이 남아있고, 항일운동 참여자들이 법정사에서 내려와 닿는 마을이 하원리였고, 격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집합지라는 특성 등이 있기 때문에 하원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였다.

거사를 바로 앞둔 1918년 10월 5일과 6일은 법정사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예불일이였다. 이 법정사 집회에 참석하여 예불을 올린 인물 중에 하원리 사람으로는 김상언, 오병윤, 이승빈, 이달생 등 4명이 있다. 이들은 10월 7일 새벽 거사 대열에 동참하여 미리 준비해두었던 깃발 6기, 화승총 3정, 곤봉 등을 가지고 행동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법정사 집회에 참석하였던 이들은 각 마을에서 참여자들을 구하는 역할도 하였다. 이들을 따라 하원리 사람인 양봉, 원인수, 김인송, 지축생, 지갑생, 오인식, 강순봉, 강태하 등 8명이 거사에 참여하였다.

하원리 인물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던 사람은 김상언이다. 김상언은 선봉대장인 강창규의 지시에 따라 하원리에서 일본인 고이즈미 기요미(小泉清身) 일행을 구타하였고 전선과 전주도 절단하였다. 김상언은 또한 강창규와 함께 중문경찰관주재소 건물에 방화하고 경찰서의 기구와 문서 등도 불사르는 데 앞장섰다. 그 결과 형량은 김상언 6년, 오병윤, 이달생, 이승빈은 1년형이 언도되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후 검찰에 송치된 하원리 인물은 『형사사건부』²⁾를 통하여 알 수 있다.³⁾ 『형사사건부』는 법정사 항일운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형사사건부』(1918, 국가기록원 소장).

3) 이 『형사사건부』를 분석한 논문이 있다. (한금순, 「1918년 제주도 법정사 항

동 관련자로 현행범 44명, 비현행범으로 22명 모두 66명을 기록해 놓고 있다. 이 중 48명을 사건 발생 한 달 여 만에 기소 처리하였고, 단 한 차례의 공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죄명은 소요 및 보안법 위반죄가 주로 적용되었고 방화죄와 상해죄, 총포 화약 취급령 위반죄 등이 적용되었다. 재판을 받은 46명 중 총지휘자인 김연일에게 선고된 징역 10년부터 벌금 30원까지 31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형사사건부』에 나타나는 하원리 출신 인물은 현행범 8명, 비현행범 12명으로 모두 20명이다. 구속된 사람은 7명, 13명은 불구속이며, 기소는 13명, 불기소 7명, 형 집행자는 13명, 방면 2명, 불기소되어 형을 받지 않은 사람이 5명이다.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하원리 출신 인물의 개인별 이력을 표 1로 정리하였다. 『형사사건부』, 『정구용판결문』, 『강창규 가출옥 관계서류』의 내용을 형량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 표를 보면 각 인물이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다.

〈표 1〉 하원리 출신 인물의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이력(형량 순)

성명	연령	현행범 여부	구속 여부	기소 여부	집행 여부	형량	역할
김상언	48	현행범	구속	기소	집행	6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의 법정사 집회에 참석하여 예불을 올림 -고이즈미 기요미(小泉清身) 등을 구타 -전선과 전주 절단 -중문경찰관주재소의 건물 방화, 경찰서의 기구와 문서 불사름 -방화죄와 상해죄 추가
오병운	22	현행범	구속	기소	집행	1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의 법정사 집회에 참석하여 예불을 올림 -10월 7일 각 마을에서 앞장 서 참여자 구함

일운동 관련 『형사사건부』 분석, 『대각사상』제12집, 대각사상연구원, 2009).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하원리 출신 참여자 연구

성명	연령	현행범 여부	구속 여부	기소 여부	집행 여부	형량	역할
이달생	32	현행범	구속	기소	집행	1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의 법정사 집회에 참석하여 예불을 올림 -10월 7일 각 마을에서 앞장 서 참여자 구함
이승빈	28	현행범	구속	기소	집행	1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의 법정사 집회에 참석하여 예불을 올림 -10월 7일 각 마을에서 앞장 서 참여자 구함
이춘삼	63	현행범	구속	기소	집행	6월	-화승총 2정 및 화약 소지, 양남구에게 양도
강순봉	35	비현행범	불구속	기소	집행	벌금 30원	-10월 7일 법정사에서 내려온 선발대를 수행하며 거사에 참여
강태하	22	비현행범	불구속	기소	집행	벌금 30원	-10월 7일 법정사에서 내려온 선발대를 수행하며 거사에 참여
김인송	41	비현행범	불구속	기소	집행	벌금 30원	-10월 7일 법정사에서 내려온 선발대를 수행하며 거사에 참여
양봉	28	비현행범	불구속	기소	집행	벌금 30원	-10월 7일 법정사에서 내려온 선발대를 수행하며 거사에 참여
오인식	23	비현행범	불구속	기소	집행	벌금 30원	-10월 7일 법정사에서 내려온 선발대를 수행하며 거사에 참여
원인수	51	비현행범	불구속	기소	집행	벌금 30원	-10월 7일 법정사에서 내려온 선발대를 수행하며 거사에 참여
지갑생	30	비현행범	불구속	기소	집행	벌금 30원	-10월 7일 법정사에서 내려온 선발대를 수행하며 거사에 참여
지축생	42	비현행범	불구속	기소	집행	벌금 30원	-10월 7일 법정사에서 내려온 선발대를 수행하며 거사에 참여
강기추	35	현행범	구속	불기소	방면		
현재천	46	현행범	구속	불기소	방면		
고기동	22	비현행범	불구속	불기소	해당 없음		
김병일	33	비현행범	불구속	불기소	해당 없음		
김인호	38	비현행범	불구속	불기소	해당 없음		
문남진	52	현행범	불구속	불기소	해당 없음		
원성춘	24	비현행범	불구속	불기소	해당 없음		
출처 『형사사건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1918년) 『정구용판결문』(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1923. 6. 29, 국가기록원 소장) 『강창규 가출옥 관계서류』(목포형무소, 1928. 12. 12, 국가기록원 소장)							

III.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 『하원리 호적중초』 내용

1. 참여자 및 가문의 호적중초 개요

『하원리 호적중초』는 1810년 경오식(庚午式) 호적중초부터 1908년 무신식(戊申式) 호적중초까지 모두 36권이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다. 호적중초에는 호주의 직역·성명·나이·본과 호주를 중심으로 4대조의 직역과 성명, 외조의 직역과 성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호적 구성원의 직역·성명·나이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호적중초를 살펴보면 해당 인물의 부모와 자녀, 4대조와 외조까지 성명으로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호적중초에 등재되었는지 어떤 가계를 구성하고 있는지, 혼인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살필 수 있다. 따라서 호적중초에서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인물의 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면 언제부터 하원리에 거주하였는지와 혼인관계 등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를 파악할 수 있으면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의 성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하원리 인물을 호적중초에서 찾기 위해 우선 현재 확인된 유족들을 통하여 해당인물의 제적부를 확인하였다. 제적부를 통하여 항일운동 참여자 본인 및 부모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성명을 가지고 『하원리 호적중초』 마지막 책인 36권(1908년)에서 본인과 부모의 성명을 찾아내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낱낱의 인물들을 찾아내었다. 그 결과 가계에 따라서는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까지 추적되는 경우도 나타났다.⁴⁾

4) 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제주하원리 호적중초』 1, 2(영인본)(서울대학교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하원리 인물의 호적중초 등재 상황을 개괄하면, 등재된 인물은 13명, 등재되지 않은 인물은 4명, 추적 불가능한 인물 3명으로 정리된다. 등재 13명은 본인 및 부(父) 등재가 11명, 본문에는 등재가 안되어 있으면서도 호적 기록 끝에 기록이 있는 1명, 대포리 호적중초에 1명이 등재되어 있다. 미등재 인물이 4명, 유족이 없어서 호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인물이 3명이 있다.

하원리 인물 20명 중 『하원리 호적중초』를 통해 본인과 부모를 확인 할 수 있는 인물 11명은 강기추, 강순봉, 강태하, 김인호, 문남진, 원인수, 이달생, 오병윤, 오인식, 원성춘, 지갑생이다. 이승빈은 대포리 호적 중초에서 확인된다. 또한 현재천은 『하원리 호적중초』 본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책의 끝에 이정으로 기록되어 나타난다. 이들 13명의 호적중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호적중초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은 고기동, 김상언, 김인송, 이춘삼 4명이고, 3명인 김병일, 양봉, 지축생은 후손이 없어서 인적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없기 때문에 제적부는 물론 호적중초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호적 등재의 원칙은 마을 구성원 전체를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할당된 만큼의 징세를 위한 수만큼만 등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호적중초에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라고 해서 하원리에 살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⁵⁾ 『하원리 호적중초』의 등재원칙을 우선 연구한 후에 미

규장각, 1992)이다. 또한 필자가 하원리 마을회관에 소장된 원본 촬영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상태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원본 촬영본에서 확인하였다.

5) 호적에 등재된 인구는 실제 인구수의 40% 혹은 3분의 2정도만 호적에 등재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연구되고 있다.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 ‘호(戶)’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 김건태, 「호구출입을 통해 본 18세기 호적대장의 편제방식」,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등재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원리 인물의 호적중초 등재 상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하원리 참여자의 호적중초 등재 상황

등재 여부	인원	성명	등재 상황
등재	13명	강기추	본인
		강순봉	본인
		김인호	본인
		문남진	본인
		오인식	본인
		원인수	본인
		이달생	본인
		현재천	본인
		강태하	부
		오병운	부
		원성춘	부
		이승빈	부
		지갑생	부
미등재	4명	고기동	미등재
		김상언	미등재
		김인송	미등재
		이춘삼	미등재
확인 불가	3명	김병일	유족 불명으로 호적중초로의 접근이 불가능
		양봉	유족 불명으로 호적중초로의 접근이 불가능
		지축생	유족 불명으로 호적중초로의 접근이 불가능

호적중초에 나타나는 하원리 인물은 표에서 보듯이 본인이 호적중초에 등재된 경우는 8명으로 강기추, 강순봉, 김인호, 문남진, 오인식, 원인수, 이달생, 현재천이고, 아버지가 호적중초에 등재된 경

우는 강태하, 오병윤, 원성춘, 이승빈, 지갑생 등 5명이다. 본인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제적부 상에 나타난 부모의 기록을 통해 호적중초를 찾아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본인이 등재되지 않는 이유는 나이가 어리거나 조선시대 호적에서 누락하는 구수(口數)의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출생하면 일정기간 등재하지 않고 있다가 나이를 속여 등재하는 것도 호적등재에서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하며, 하원리 인물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가 포착되었다. 이는 15세부터 역의 부담을 지게 되어있어서 늦게 등재하면 그만큼 역의 부담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호적중초 등재 횟수 및 등재 연도이다. 본인과 부(父)로 등재된 인물만을 표로 만들었다.

〈표 3〉 하원리 참여자의 호적중초 등재 횟수 및 연도

등재 여부	성명	등재상황	등재 횟수 및 연도	
			등재 횟수	등재된 호적중초의 연도
등재	강기추	본인	4	1905~1908
	강순봉	본인	3	1906~1908
	김인호	본인	3	1906~1908
	문남진	본인	1	1908
	오인식	본인	1	1908
	원인수	본인	12	1894~1908
	이달생	본인	4	1905~1908
	현재천	본인	3	1898, 1902, 1908
	강태하	부	5	1904~1908
	오병윤	부	13	1882~1908
	원성춘	부	6	1898~1903
	이승빈	부	6	1898, 1900~1904
	지갑생	부	5	1904~1908

본인과 부(父)의 등재 외에도 연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윗대 가계가 지속적으로 등재된 경우도 파악되었다.

다음의 표는 하원리 인물들의 가계가 어느 기간만큼 호적중초에 등재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하원리 호적중초』 1권에서부터 마지막 36권까지 계속 등재된 집안이 있는가 하면, 등재되었다 누락되었다 하는 가계도 있다. 호적명은 길어서 본고에서는 순서에 따라 ‘1권’과 같이 숫자로 표현하도록 하겠다. 『하원리 호적중초』의 원래 명칭은 부록으로 첨부한다.

〈표 4〉 가계별 등재 호적중초 및 등재 기간

성명	등재된 호적중초	등재 기간	비고
강기추	『하원리 호적중초』 1권~36권	1810년~1908년	
강순봉	『하원리 호적중초』 1권~36권	1810년~1908년	
강태하	『하원리 호적중초』 1권~36권	1810년~1908년	
오병윤	『하원리 호적중초』 1권~36권	1810년~1908년	
오인식	『하원리 호적중초』 1권~36권	1810년~1908년	
이달생	『하원리 호적중초』 1권~36권	1810년~1908년	
지갑생	『하원리 호적중초』 1권~36권	1810년~1908년	
원성춘	『하원리 호적중초』 8권~36권	1837년~1908년	11권에는 없음
원인수	『하원리 호적중초』 26권~36권	1894년~1908년	대포리에서 이주
현재천	『하원리 호적중초』 27권, 30권, 36권	1898년, 1902년, 1908년	권 말미 이정 기록
이승빈	『대포리 호적중초』 27권~32권	1898년~1904년	대포리 호적
김인호	『하원리 호적중초』 34권~36권	1906년~1908년	
문남진	『하원리 호적중초』 36권	1908년	

이상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하원리 인물의 호적중초 등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하원리 인물들은 20명이다. 이 가운데 호적중초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13명이다. 4명은 미등재이고, 3명은 유족이 밝혀지지 않아서 호적중초로 접근 조사가 불

가능한 경우이다. 호적중초에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8명이고 부(父)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5명이다. 아울러 호적중초에 등재되는 기간은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에서부터 36권(1908년)까지 가계가 지속적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는가 하면, 등재되었다 누락되었다 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또한 호적중초 본문에는 누락 되었으면서 호적중초 말미에 이정으로 기록된 인물의 경우도 볼 수 있었다.

2. 개인별 호적중초 자료의 내용과 분석

하원리 참여인물 20명의 개인별 호적중초 등재 내용을 살펴보고도 록 하겠다. 호적중초에는 성명, 연령과 함께 직역이 기재되어 있다. 하원리 인물들의 직역은 별감(別監), 장의(掌議), 유향별감(留鄕別監), 품관(品官), 교생(校生), 집사(執事) 등이 있다. 직역으로 신분을 파악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제주도 호적의 직역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여 본고에서는 직역을 통한 하원리 인물의 성격 파악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본인 등재, 부(父) 등재, 미등재 순으로 정리한다.

1) 본인 등재

(1) 강기추

강기추의 집안은 1810년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부터 마지막 『하원리 호적중초』 36권(1908년)까지 등재되어 있다. 강기추는 1905년 호적중초에 3세로 처음 등재되었다. 강기추의 호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강기추는 1907년에 갑자기 15세로 기록되고 있다. 호적중초에 나이를 속이는 경우는 15세부터 59세까지 부담하

도록 되어있는 직역을 피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강기추의 경우도 3세, 4세 등재 후 바로 다음 해에 갑자기 15세로 등재된다. 15세로 등재된 해에 강기추는 아버지 호에서 분호(分戶)하여 홀로 호(戶)를 구성하고 있으며 결혼하여 부인을 두고 있음이 발견된다.

1907년에 15세로 등재된 것도 실제 나이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강기추의 실제 나이는 제적부에 1883년생으로 기록되어 있어 24세 정도일 때 15세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제적부의 출생연도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35세로 기록되어 있어 일치된다. 호적중초의 나이는 직역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5〉 강기추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33	하원 34	하원 35	하원 35	하원 36
연도	서기	1905	1906	1907	1907	1908
	연호	광무 9년	광무 10년	융희 1년	융희 1년	융희 2년
통 / 호		7통 7호	7통 7호	7통 7호	16통 7호	11통 2호
부	직역	別監	別監	別監		
	성명	文亨	文亨	文亨		
	연령	51	52	53		
모	씨명	任氏	任氏	任氏		
	연령	49	50	51		
본인	직역				校生	
	성명	基樞	基樞	基樞	姜基樞	姜基樞
	연령	3	4	15	15	16
처					李氏	李氏
					20	13
비고	- 강기추의 집안은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부터 마지막 『하원리 호적중초』 36권(1908년)까지 등재되어 있다. - 강기추는 1918년에 제적부를 기준으로 하면 35세, 『형사사건부』(1918년)에 35세, 호적중초를 기준으로 하면 13세에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이 된다.					

(2) 강순봉

강순봉의 집안은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부터 마지막 『하원리 호적중초』 36권(1908년)까지 등재되어 있다. 강순봉은 『형사사건부』에 강순봉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됨과 동시에 이명으로 호봉(好逢)이 기록되어 있다. 호적중초에는 호봉(好逢, 鎬逢)으로 제적부에는 강순봉으로 기록하고 있다. 호적중초와 제적부 기록을 비교해보면 아버지는 강영백으로 일치하고 있어 강순봉이 강호봉과 동일 인물임을 입증할 수 있다. 강순봉도 강기추처럼 호적중초에 나이를 늦게 등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강순봉은 『형사사건부』(1918년)에 35세로 기록되어 있다. 제적부에는 1893년생으로 기록되어 있어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당시는 25세였을 것이다. 호적중초에 1906년에 4세로 기록되어 있으나 제적부를 기준으로 하면 당시 13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강순봉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34	하원 35	하원 35	하원 36
연도	서기	1906	1907	1907	1908
		광무 10년	융희 1년	융희 1년	융희 2년
통 / 호		8통 3호	8통 3호	17통 1호	12통 3호
부	직역	掌議	掌議	掌議	掌議
	성명	永伯	永伯	姜永伯	姜永伯
	연령	47	48	48	49
모	씨명	李氏	李氏	李氏	李氏
	연령	47	48	48	49
본인	성명	鎬逢	鎬逢	好逢	鎬逢
	연령	4	5	5	6
비고	- 강순봉의 집안은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부터 마지막 『하원리 호적중초』 36권(1908년)까지 등재되어 있다. 강순봉은 1918년에 제적부를 기준으로 하면 25세, 『형사사건부』(1918년)에 35세, 호적중초를 기준으로 하면 16세에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이 된다.				

강순봉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강순봉의 외조부모는 이달생의 조부모라는 점이다. 두 사람의 제적부와 호적중초에 드러난다.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인 강순봉과 이달생은 사촌 형제지간이다.

(3) 김인호

김인호는 1906년 34권 호적중초에부터 나타난다.

〈표 7〉 김인호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34	하원 35	하원 36
연도	서기	1906	1907	1908
	연호	광무 10년	융희 1년	융희 2년
통 / 호		12통 8호	11통 2호	16통 6호
부	직역		留鄉座首	留鄉座首
	성명		金昌俊	金昌俊
	연령		61	62
모	씨명		高氏	高氏
	연령		64	65
본인	직역	留鄉別監	留鄉別監	留鄉別監
	성명	金仁浩	仁浩	仁浩
	연령	26	26	27
비고	- 1918년 김인호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38세, 제적부에 1880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38세, 호적중초의 나이로 기준하면 37세에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이 된다.			

김인호의 부인 강신출(姜辛出)은 강기길의 장녀이다. 강기길은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인 강태하의 아버지이다. 강신출은 강태하의 누나 즉 김인호는 강태하의 자형임을 제적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4) 문남진

문남진은 1908년 호적중초 36권에만 나타나고 있다. 장의(掌議)의 직역을 기록하고 있다. 부모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이 없다.

〈표 8〉 문남진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36
연도	서기	1908
	연호	융희 2년
통 / 호		20통 5호
본인	직역	掌議
	성명	文南辰
	연령	45
처	씨명	李氏
	연령	27
비고	- 1918년 문남진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52세, 제적부에 1863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55세, 호적중초의 나이로 기준하면 55세에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이 된다.	

자료들을 비교 검토해 보면, 문남진의 제적부는 하원리를 첫 본적지로 기록하고 있으며,⁶⁾ 이어 도순리를 거쳐 대포리로 이주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문남진의 본적지는 『형사사건부』에 도순리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문남진은 1908년 『하원리 호적중초』에 등재되어 있다. 그 이전에 도순리 호적중초에 등재되어 있을지 모르겠다.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1919년 2월에는 도순리로 돌아갔으나 동생들과는 다른 번지에 살았다. 1년 채 못 살고 1920년 1월 대포리로 이주하여 1945년 사망할 때 까지 대포리에 거주하였다.

6)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인 문남진, 문남규, 문남은은 형제이다. 그러나 문남규와 문남은은 『하원리 호적중초』에서 발견되지 않아 형제이지만 하원리 인물숫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형사사건부』에는 도순리로 주소가 기록되어 있다.

(5) 오인식

오인식의 집안은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부터 마지막 호적중초 36권(1908년)까지 나타난다.

〈표 9〉 오인식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33	하원 34	하원 35	하원 36
연도	서기	1905	1906	1907	1908
	연호	광무 9년	광무 10년	융희 1년	융희 2년
통 / 호		2통 3호	2통 3호	2통 3호	2통 8호
부	직역	留郷別監	留郷別監	留郷別監	留郷別監
	성명	吳永化	吳永化	吳永化	吳永化
	연령	41	42	43	44
모	씨명	姜氏	姜氏	姜氏	姜氏
	연령	41	42	43	44
본인	성명				率子
	연령				3
비고	- 1918년 오인식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23세, 제적부에 1896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22세이다. 호적중초를 기준하면 13세에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이 된다.				

오인식은 1908년에 3세 술자(率子)로 등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적부에 의하면 오인식은 오영화의 장남으로 1896년생이라 제적부를 기준으로 하면 1908년에 12세였을 것이다. 오인식도 뒤늦게 호적에 등재시키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제적부에 의하면 오영화의 차남은 1910년생이다. 오인식은 『형사사건부』(1918년)에 23세, 제적부에 1896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22세이다. 만일 차남이라면 법정사 항일운동에 8세에 참여한 것이 되므로, 호적중초의 술자(率子)는 이름을 등재하지 않고 자식이라는 뜻으로만 쓴 것이지만 나이로 보았을 때 오인식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6) 원인수

원인수는 『하원리 호적중초』 26권(1894년)부터 36권까지 등재되어 있다. 원인수는 1894년에 강신록의 의자(儀子)로 들어가면서 호적중초에 등재된다. 원인수(元仁守, 仁秀, 仁壽, 仁好⁷⁾)의 생부는 원재호(在湖), 조부 계철(繼哲), 증조 필대(弼大)이다. 생부 원재호는 호적등재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조부 원계철은 대포리 호적중초에서 발견된다. 원래 대포리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0〉 원인수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26	하원 27	하원 28	하원 29	하원 30	하원 31	하원 32	하원 33	하원 34	하원 35	하원 36
연도	서기	1894	1898	1899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연호								광무 9년	광무 10년	융희 1년	융희 2년
통/호		6통 2호	3통 6호	3통 5호	3통 4호	3통 4호	3통 5호	3통 5호	3통 5호	3통 5호	3통 5호	4통 7호
부	직역								學生	學生	學生	學生
	성명								在湖	在湖	在湖	在湖
	연령											
모	씨명								姜召史	姜召史	姜召史	姜召史
	연령								60	61	62	63

- 7) 호적중초 상에서 원인수의 나이는 1894년에 36세에서 1904년에는 45세이다가, 1905년 호를 이어받으면서 38세로 바뀐다. 원인수라는 이름을 원인호로 쓰다가 원인수로 다시 쓴다. 동일인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원인수라는 이름을 쓸 때와 원인호라는 이름을 쓸 때 모두 부인이 고씨이며 강신록의 의자(儀子)로 계속 기록되고 있는 점 또 이름이 인호에서 인수로 바뀌면서도 주소는 3통 5호로 바뀌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원인호와 원인수는 동일인물이라고 보았다.

호적명	구분	하원 26	하원 27	하원 28	하원 29	하원 30	하원 31	하원 32	하원 33	하원 34	하원 35	하원 36
본인	직역	品官		品官	品官	品官	品官	品官				品官
	성명	儀子 元仁秀	儀子 元仁好	假子 元仁好	假子 元仁浩	假子 元仁好	儀子 元仁好	儀子 元仁好	康信祿 故代儀子 元仁壽	元仁守	元仁守	元仁守
	연령	36	39	40	42	43	44	45	38	39	40	41
처	씨명			高召史	高召史	高召史	高召史	高召史	高召史	高氏	高氏	高氏
	연령			24	26	27	28	28	29	30	31	32
비고	- 1918년 원인수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51세, 제적부에 1868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50세, 호적중초를 기준으로 하면 51세에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이 된다.											

(7) 이달생

이달생의 집안은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부터 마지막 호적중초 36권(1908년)까지 나타난다.

〈표 11〉 이달생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33	하원 34	하원 35	하원 36
연도	서기	1905	1906	1907	1908
	연호	광무 9년	광무 10년	융희 1년	융희 2년
통 / 호		1통 9호	1통 9호	1통 9호	2통 1호
부	직역	掌議	掌議	掌議	掌議
	성명	李才伯	李才伯	李才伯	李才伯
	연령	49	50	51	52
모	씨명	高氏	高氏	高氏	高氏
	연령	52	53	54	55
본인	성명	達生	達生	達生	達生
	연령	4	5	6	7
비고	- 1918년 이달생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32세, 제적부에 1887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31세, 호적중초를 기준으로 하면 17세에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이 된다.				

제적부를 기준으로 하면 1905년에 처음 호적에 등재되는 이달생은 4세가 아니라 18세였을 것이다. 『형사사건부』에는 1918년에 32세로 기록되어 있다.

이달생의 조부는 이광노인데 앞에서 살핀 강순봉의 외조부가 이광노이다.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이달생과 강순봉은 사촌 형제지간이다.

(8) 현재천

현재천은 호적중초의 말미에 세 차례 이정(厘正)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호적중초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표 12〉 현재천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하원 27	하원 30	하원 36
연도	1898	1902	1908
직함과 성명	厘正 玄才千	厘正 玄才千	厘正 玄才千

이정(厘正)은 호적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 감고(監考) 별유사(別有司) 존위(尊位) 등과 함께 각 개인이 제출한 호구단자를 검수하는 일을 하는 직함이다. 이들은 호적중초의 말미에 수기(手記)를 남기고 있는데 이정(厘正)과 감고(監考)는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고 별유사(別有司)와 존위(尊位)는 성(姓)만을 수기(手記)하고 있다.

원성춘의 경우도 증조인 원재홍이 감고(監考)로 호적중초 말미에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천의 경우처럼 해당 호적중초 본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가 12권(1849년)부터 호적중초 본문에 등재되고 있다.

현재천은 이정을 세 차례 말하면서도 호적중초 본문에는 등재되지 않았고 원성춘의 증조도 세 차례의 감고직 수행에도 해당 호적

중초에는 등재되지 않고 있다. 물론 조선시대 호적이 당시의 인구를 모두 등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연구되어 있다.⁸⁾ 또한 필자는 호적작성 직책을 맡은 이정 현재천이 호적중초 본문에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하원리 호적중초』 36책 전부에서 성명이 기록으로 남는 이정과 감고를 찾는 작업을 하였다. 조사 결과는 이정과 감고의 직책을 수행하였으면서도 호적중초 본문에 등재되지 않는 이정은 전체의 40%에 걸쳐 나타났고 감고는 36%가 누락되는 현상을 보였다. 게다가 이정 감고가 한꺼번에 모두 본문에 누락된 호적중초는 9개책으로 전체의 무려 25%에 달했다. 호적중초 말미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호적작성의 담당자인 이정과 감고의 누락은 제주도의 조선시대 호적 작성에서도 의도적인 누락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인다.⁹⁾ 이렇게 『하원리 호적중초』에 누락된 인명이 조사되는 것을 보면 마을 구성원 전체가 호적에 등재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임이 증명된다. 그렇다면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도 하원리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 되므로, 호적중초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유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의 이정과 감고가 대거 등재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호적중초에 등재되지 않은 인물들이 마을의 주변부에서 유랑하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평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한다.

-
- 8) 김건태, 「조선후기의 인구과악 실상과 그 성격」, 『단성 호적대장 연구』(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김건태, 「호구출입을 통해 본 18세기 호적대장의 편제방식」, 『단성 호적대장 연구』(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 ‘호(戶)’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단성 호적대장 연구』(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 9) 『하원리 호적중초』에 등재된 이정의 현황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한금순,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대동문화연구』제82집, 대동문화연구원, 2013).

현재전은 현재 유족이 밝혀지지 않아서 제적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정이었던 기록만으로는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였다.

2) 부(父) 등재

(1) 강태하

강태하의 집안은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부터 마지막 36권(1908년)까지 나타난다.

〈표 13〉 강태하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32	하원 33	하원 34	하원35	하원 36
연도	서기	1904	1905	1906	1907	1908
	연호	광무 8년	광무 9년	광무 10년	융희 1년	융희 2년
통 / 호		7통 5호	7통 5호	7통 5호	7통 5호	10통 8호
부	직역	掌議	掌議	掌議	掌議	掌議
	성명	姜基吉	姜基吉	姜基吉	姜基吉	姜基吉
	연령	52	55	56	57	58
모	씨명	金氏	金氏	金氏	金氏	金氏
	연령	42	45	46	47	48
형	성명	太休	太休	太休	太休	太休
		3	4	5	6	7
비고	- 강태하는 강기길의 3남이다. - 1918년 강태하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22세, 제적부에 1897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21세, 호적중초를 기준으로 하면 17세에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이 된다.					

제적부에 의하면 강태하는 강기길의 3남으로 1897년생이다. 호적중초에 등재된 강태휴는 강태하의 형이다. 제적부 상에 강태하는 강

태휴에게서 분가하여 1917년 호주가 되었다. 강태하의 누나는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김인호와 혼인하였다.

(2) 오병윤

오병윤의 집안은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부터 마지막 36권(1908년)까지 나타난다.

〈표 14〉 오병윤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32	하원 33	하원 34	하원 35	하원 36
연도	서기	1904	1905	1906	1907	1908
	연호	광무 8년	광무 9년	광무 10년	융희 1년	융희 2년
통 / 호		2통 2호	2통 2호	2통 2호	13통 5호	2통 6호
부	직역	留郷別監	留郷別監	留郷別監	留郷別監	留郷別監
	성명	永俊	英俊	英俊	吳英俊	吳永俊
	연령	35	36	37	38	49
모	씨명	姜氏	姜氏	姜氏	姜氏	姜氏
	연령	35	36	37	38	39
본인	성명					
	연령					
비고	- 호적중초에는 아버지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 1918년 오병윤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22세, 제적부에 1901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17세에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오병윤은 제적부에 오병용(吳丙用)으로 등재되어 있다. 제적부 상 오병용의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의 성명이 오병윤의 호적중초 상 성명과 일치하여 오병용이 곧 오병윤임이 증명된다. 오병윤의 둘째 아들인 오운현(1936년생)은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인 강태하의 딸과 결혼하였음이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다.

(3) 원성춘

원성춘의 집안은 『하원리 호적중초』 8권(1837년)부터 마지막 36권(1908년)까지 나타난다. 11권에는 누락되었다. 증조 원재홍은 『하원리 호적중초』 8권(1837년)과 9권(1840년) 10권(1843년)의 말미에 감고(監考)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전의 경우처럼 호적중초 본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가 12권(1849년)부터 본문에 등재되고 있다.

〈표 15〉 원성춘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27	하원 28	하원 29	하원 30	하원 31
연도	서기	1898	1899	1901	1902	1903
	연호	광무 2년	광무 3년	광무 5년	광무 6년	광무 7년
통 / 호		8통 3호	8통 1호	8통 1호	8통 5호	8통 7호
부	직역	校生	校生	校生	校生	校生
	성명	元贊玉	贊玉	贊玉	贊玉	贊玉
	연령	34	35	35	38	39
모	씨명		李氏	李氏	李氏	李氏
	연령		29	29	32	33
본인	성명					
	연령					
비고	- 조부부터 호적중초에 등재되고 있는데 8권(1837년)부터 마지막 36권까지 등재되어 있다(11권은 누락). - 호적중초에는 아버지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 1918년 원성춘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24세, 제적부에 1896년 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22세에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이 된다.					

제적부 기록에 원성춘의 아버지는 원찬옥 어머니는 이인이다. 이를 토대로 호적중초에서 아버지 원찬옥을 찾아내었다.

(4) 이승빈

『형사사건부』에 이승빈은 하원리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승빈의 집안은 대포리 호적중초에서 발견된다. 제적부 기록에 이승빈의 아버지는 이재걸, 어머니 허씨, 조부는 이흥렬이다. 조부와 어머니의 성명까지 호적중초와 일치하고 있다. 대포리 호적중초 27권(1898년)에서 처음 보이고 1904년 32권을 끝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표 16〉 이승빈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대포 27	대포 28	대포 29	대포 30	대포 31	대포 32
	권명	光武二年 戊戌正月 日戶籍中草 /大浦里	光武四年 庚子式正月 日戶籍中草 /大浦里	光武五年 辛丑正月 日戶籍中草 /大浦里	光武六年 壬寅正月 日戶籍中草 /大浦里	光武七年 癸卯式五月 日戶籍中草 /大浦里	光武八年 甲辰式正月 日戶籍中草 /大浦里
연도	서기	1898	1900	1901	1902	1903	1904
	연호	광무 2년	광무 4년	광무 5년	광무 6년	광무 7년	광무 8년
통 / 호		1통 6호	1통 7호	1통 7호	1통 7호	1통 7호	1통 7호
부	직역	掌議	掌議	掌議	掌議	掌議	掌議
	성명	李在傑	李在傑	李在傑	李在傑	李在傑	李在傑
	연령	44	46	47	48	49	50
모	씨명	許氏	許氏	許氏	許氏	許氏	
	연령	45	47	48	49	50	
자	성명	時芳	時芳	正斌	正斌	正斌	正斌
	연령	5	7	8	9	10	11
비고	- 『형사사건부』에 이승빈은 하원리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 1918년 이승빈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28세, 제적부에 1891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27세에, 호적중초를 기준으로 하면 25세에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5) 지갑생

지갑생의 집안은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부터 마지막 36권 호적중초(1908년)까지 나타난다.

〈표 17〉 지갑생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32	하원 33	하원 34	하원 35	하원 36
연도	서기	1904	1905	1906	1907	1908
	연호	광무 8년	광무 9년	광무 10년	융희 1년	융희 2년
통 / 호		4통 1호	3통 10호	3통 10호	14통 7호	5통 5호
부	직역	執事	執事	執事	執事	執事
	성명	昌念 ¹⁰⁾	昌念	昌日	昌一	池昌日
	연령	44	45	46	47	48
모	씨명	姜召史	姜召史	姜召史	姜召史	姜召史
	연령	34	35	36	37	38
본인	성명					
	연령					
비고	- 호적중초에는 아버지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 1918년 지갑생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30세, 제적부에 1882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36세에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제적부에 의하면 아버지는 지창념 어머니는 강옥이다. 제적부의 기록을 통해 호적중초에서 아버지 지창념을 찾아내었다.

3) 호적중초 미등재

호적중초에서 찾지 못한 사람은 4명이다.

10) 지창념은 창일(昌日, 昌一)이라는 이명도 사용하였다.

(1) 고기동

고기동은 호적중초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제적부에 의하면 고기동은 1897년생으로 하원리에서 출생하여 1959년 사망할 때까지 하원리에 살았다.

(2) 김상언

김상언은 호적중초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제적부에 의하면 아버지는 김용진 어머니는 한씨이다. 김상언은 1922년 3월 10일 하원리에서 외도리로 이주하였음을 제적부에 남기고 있는데 이는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던 이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상언은 법정사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10월 5일과 6일의 법정사 예불에 참석하였고 거사 당일에는 고이즈미 기요미(小泉清身) 등을 구타하였고 전선과 전주를 절단하고 중문경찰관주재소의 건물을 방화하고 경찰서의 기구와 문서를 불사른 주역이다.

하원리 사람들 중 가장 중형인 6년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3년으로 감형되었는데 1919년 2월 4일 형이 집행되었으므로 1922년 2월 3일이 형기 종료일로 계산된다. 제적부의 기록은 바로 출옥 이후 외도리로 이주하였음을 추정하게 해준다. 법정사 항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은 하원리를 떠나야하였던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이정이었던 현재천도 마을을 떠났다.

(3) 김인송

김인송은 호적중초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제적부 상 김인송은 1877년 하원리에서 출생하였고 1929년 하원리에서 사망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4) 이춘삼

이춘삼은 호적중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제적부 상 이춘삼의 아버지는 이용광 어머니는 고씨이다. 이춘삼은 1855년 하원리에서 태어났으나 1929년 제주면 오등리로 이전한다. 이춘삼도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이후 하원리를 떠나야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춘삼은 당시 63세의 나이로 화승총과 화약을 가지고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여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소요 및 보안법 위반죄에 총포 화약 취급령 위반죄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이력으로 마을을 떠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확인 불가

현재 유족을 찾지 못하여 제적부도 추적이 불가능함으로 호적중초로의 접근 시도가 불가능한 인물은 김병일, 양봉, 지축생 3명이다. 이상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하원리 인물 20명에 대해 살펴보았다. 13명은 호적중초에 등재된 인물이고 4명은 호적중초 미등재 인물, 3명은 유족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여서 추적 자체가 불가능한 인물들이다.

IV.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주민의 성격

『하원리 호적중초』를 통하여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인물간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었다. 강순봉의 외조부 이광노는 이달생의 조부이다. 강순봉과 이달생은 사촌 형제지간이다. 김인호의 부인 강신출은 강태하의 누나이다. 김인호는 강태하의 자형이다. 오병윤의 둘째 아들인 오운현(1936년생)은 강태하의 딸과 결혼하였다. 오병윤과 강태

하는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사돈을 맺는다. 『하원리 호적중초』에 등재된 13명의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인물 중 6명은 가족 관계임을 찾아낼 수 있었다. 친척지간이라서 법정사 항일운동에 같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찾아보려했으나 이 결과로는 그러한 동기를 증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호적중초에 등재된 시기 및 등재 기간을 통해 해당 인물의 가계가 하원리에 거주한 기간을 살필 수 있었다. 13명 중 7명(강기추, 강순봉, 강태하, 오병윤, 오인식, 이달생, 지갑생)은 『하원리 호적중초』 전체 책에 등재되었다. 1810년 『하원리 호적중초』 1권에서부터 1908년 36권까지 등재되어 100년 가까이 하원리에 거주한 가계임을 말해준다. 원성춘은 1837년 8권부터 줄곧 등재되어 1908년 36권까지 70여 년 간 등재되고 있음이 보인다. 원인수는 대포리에서 이주한 이후 1894년부터 『하원리 호적중초』에 등재되고 있다. 그리고 이승빈이 1898년에 등재되기 시작하고 김인호가 1906년에 문남진이 1908년에 등재되기도 한다.

호적중초에 등재되었는지의 여부와 오랜 기간 등재되었음이 마을에서의 위상을 파악하는 데에 의미를 지닐 것으로 처음에는 생각하였다. 기존연구에서도 호적중초 등재 여부를 가지고, 누락된 사람은 호구조사에서 마을의 호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난하였기 때문에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성격을 파악하였다.¹¹⁾

그러나 하원리의 강기추, 강순봉, 오인식, 이달생 등의 예에서 살펴보면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 호적중초 만으로도 출생하면 바로 등재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강기추는 1905년 호적중

11) 김창민,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와 운동의 성격」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사단법인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서귀포시, 2002. 11. 21).

초에 3세로 처음 등재되었다가 2년 뒤인 1907년에 갑자기 15세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적부에 의하면 24세 정도일 때 15세로 등재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는 15세부터의 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늦게 등재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강순봉의 경우도 1893년생이나 호적중초에는 1906년에 4세로 처음 등재된다. 제적부를 기준으로 하면 오인식은 1896년생이나 1908년에 3세로 처음 등재되고, 1887년생인 이달생은 1905년에 처음 4세로 등재된다. 이렇게 의도적 누락이 가능하다면 오랜 기간 등재되었음이 혹은 호적중초에 누락되는 것이 그 인물의 마을에서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선시대 호적은 조세에 필요한 호구(戶口)를 등재하고 마을의 모든 호구를 등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가 1896년의 ‘호구조사세칙’으로 별거하고 있으면 개별호로 파악한다는 원칙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그간 누락되었던 호구(戶口)가 이 세칙 이후 새로이 등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연구되었다. 필자는 제주도 『하원리 호적중초』 전체인 1810년부터 1908년까지의 36책을 대상으로 각 식년의 원호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을 살폈다.¹²⁾ 그랬더니 갑오식(甲午式 : 1894년)과 무술식(戊戌式 : 1898년) 사이에 원호의 증가가 84.4%로 『하원리 호적중초』들 간에 가장 증가율이 두드러지고 인구도 7.7%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근거하여 실명이 기록되는 남정을 추적하면 두 식년 사이에서 누가 새롭게 등재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러면 신등재되는 호와 인물은 곧 이전에 누락되었던 호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를 조사하였다. 『하원리 호적중초』 갑

12) 한금순,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대동문화연구』 제82집, 대동문화연구원, 2013).

오식(甲午式 : 1894년)과 무술식(戊戌式 : 1898년)의 누호(漏戶)와 누구(漏口) 현상을 조사하였더니 의외의 현상이 포착되었다. 갑오식(甲午式 : 1894년)에서는 전체 남정의 20%인 40명이 다음 식년인 무술식(戊戌式 : 1898년)에 누락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사망 등의 자연 감소로 추정되는 인물(5명)을 제외한 숫자이다. 1896년의 ‘호구조사세칙’으로 이제는 하원리 마을의 모든 인구가 다 등재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여전히 다음 식년에 누락되는 남자가 40명이었다. 그리고 갑오식(甲午式 : 1894년)에 등재되지 않았는데 무술식(戊戌式 : 1898년)에 신등재되는 남자는 전체 남정의 28%인 63명이나 되었다. 출생으로 새로이 등재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5세미만(6명)을 제외한 숫자이다. 적어도 1894년에 63명 정도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두 개 식년 호적중초 사이에서만 총 103명의 이탈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두 개의 식년 『하원리 호적중초』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하원리 호적중초』가 하원리 호구 전체를 등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하원리 인물들의 예로 보아도 1896년의 ‘호구조사세칙’ 적용 이후에도 호적 등재가 누락되는 인물이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강기추는 제적부에 의하면 1883년생이다. 1896년 ‘호구조사세칙’ 적용 당시는 13세 정도였을 것이나 1905년이 되어서야 3세로 처음 등재된다. 강순봉도 제적부에는 1893년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호적중초에는 1906년에야 4세로 등재된다. 오인식은 1896년생이나 1908년에 3세로 처음 등재되고, 이달생은 1887년생인데 1905년에 처음 4세로 등재된다. 이는 제주도 호적중초에도 나이를 속여 등재하는 현상이 있었고 의도적 누락의 경우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호적중초는 출생과 사망, 이전 상황, 도망자 등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 특히 “『하원리 호적중초』는 3세 미만의 남녀의 출생과 사

망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고, 하원리의 이래(移來)와 이거(移去), 더부살이 하고 있는 자 그리고 도망 혹은 표류자에 대한 자세한 상황 등의 인구의 이동 및 실제의 인구, 거주 상황 등의 변동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다.”¹³⁾고 보고 있으나 실제 남정의 이름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상당수의 누구(漏口)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이를 속여 등재기간을 조절한다던지 의도적인 누락과 등재 현상이 포착되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하원리 인물 20명 중에 4명이 미등재되었다는 것은 조선시대 제주도 호적중초의 등재원칙 혹은 등재현황과 비교해야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 등재되지 않은 이유를 함부로 추정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등재된 인물과 등재되지 않은 인물 간의 평가 또는 등재 기간의 의미 부여는 유보한다. 제주도 호적작성 원칙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진 이후에 그 의미를 부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호적중초로 접근하기 위해 활용한 제적부와 호적중초와의 비교연구를 통해서도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하원리 마을을 떠난 사람들도 파악되었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김상언과 화승총을 소지하고 참여한 이춘삼이 마을을 떠났음을 기록을 통해 찾을 수 있었고, 마을 이장이었던 현재천도 마을을 떠난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본 연구는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들의 호적중초 등재현황을 살핀다면 참여주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하원리 호적중초』를 조사해 본 결과 이러한 분석은 선부른 것으로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우선 호적중초에 등재된 사람들이 하원리 인구 전체를 등재한 것인지 일부만 등재한 것인지에

13) 서울대학교 규장각, 『제주하원리 호적중초』 1, 2(영인본), 서울경인인쇄협동조합, 1992, 6면.

대한 연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호적중초에 등재된 것의 의미를 부여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호적중초 연구를 통해 마을 내 혼인관계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야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들간의 결혼을 통한 가족관계 형성이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하원리 인물들의 호적중초 등재 상황을 분석한 것만으로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 분석은 『하원리 호적중초』의 인구 누락 현상, 등재 기간 분석 등이 이루어진 연후에 다시 그 의미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하원리 호적중초』를 분석해 보고나서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마을 중 도순리, 월평리, 대포리 등지의 조선시대 호적중초로 범위를 넓혀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였다. 이들 마을들의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전부를 조사한다면 그 공통점을 따라 유의미한 분석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V. 맺음말

제주도에는 조선시대 호적중초가 많이 남아있다. 제주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추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제주도의 삶의 유산을 활용한 연구의 범위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유산이 우리의 삶의 방식의 또 하나의 범주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근대 제주도의 항일운동의 백미인 법정사 항일운동을 조선시대 제주도 호적중초와 연계시키는 연구를 생각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 가계를 호적중초에서 찾아낼 수 있다면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 성격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분석 결과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여 기록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하원리 인물은 모두 20명이다. 이 가운데 13명이 『하원리 호적중초』에 등재되고 있었다. 4명이 등재되지 않고 있고, 3명은 현재 유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인적사항이 미비하여 추적이 불가능하였다.

호적중초에 등재된 인물 13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본인이 등재된 경우 8명, 부(父) 등재가 5명이다. 등재 횟수별로 살펴보면 본인 등재인 경우 1회 등재에서부터 12회 등재된 인물까지 있었고, 부(父) 등재인 경우 5회 등재부터 13회 등재된 경우까지 살필 수 있었다. 가계의 등재기간을 살펴보면 1810년 『하원리 호적중초』 1권부터 등재되는 가계가 있는가하면 중간에 나타나는 가계 혹은 1회만 등재되는 인물까지 있었다.

하원리 인물의 호적중초 등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가 호적중초에 등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비롯하여, 참여자 가계의 등재 여부 및 언제부터 하원리에 살고 있던 가계인지 파악이 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간의 가족관계가 파악되는가 하면, 항일운동 이후의 혼인관계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원리 호적중초』의 호구(戶口)가 마을 전체의 호구를 등재하고 있지 않음이 포착되었다. 호구의 의도적인 누락현상과 나이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현상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하원리 인물의 호적중초 등재 상황으로 알아보고자 했던 법정사 참여인물의 성격을 판단할 수 없었다. 모든 인구가 다 등재되고 있다면 등재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판단할 수 있을 터이고 누락되는 호구가 없다면

등재 기간 또한 그 의미가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의미 판단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선 제주도 호적중초들의 호적작성 원칙에 대한 연구 등 호적중초 본연의 특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알았다. 각 호적중초에 전체의 몇 %정도의 호구가 등재되고 있는지 등의 연구가 전제되어야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들의 호적중초 등재상황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원리 호적중초』 상의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인물의 등재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차후 다른 마을 참여자들의 호적등재 특성과 호적중초 본연의 특성 연구까지 이루어진 이후에 제주도 호적중초를 활용한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로 다시 접근해 볼 가능성을 남기는 것으로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참고자료

- 『강창규 가출옥 관계서류』(목포형무소, 1928. 12. 12, 국가기록원 소장)
『수형인명부』(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18, 국가기록원 소장)
『정구용판결문』(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1923. 6. 29, 국가기록원 소장)
『형사사건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1918, 국가기록원 소장)
『하원리 호적중초』(하원리 마을회관 소장 촬영본, 2007)
『대포리 호적중초』(대포리 마을회관 소장 촬영본, 2007)
서울대학교 규장각, 『제주하원리 호적중초』 1, 2(영인본), 서울경인인쇄협동조합, 1992.

2. 연구논문

- 김건태, 「호구출입을 통해 본 18세기 호적대장의 편제방식」,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 김동전, 「19세기 제주 지역의 신분구조와 직역의 사회적 의미」,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 _____, 「조선후기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기초적 연구」, 『역사민속학』 19,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 _____, 「호적중초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정현의 호구와 그 변동」, 『동서사학』 제6·7합집, 2000.
- 김창민,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와 운동의 성격」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사단법인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서귀포시, 2002. 11. 21).
-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 ‘호(戶)’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 _____, 「1918년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형사사건부』 분석」 『대각사상』 제12집, 대각사상연구원, 2009.
- _____,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 _____,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대동문화연구』 제82집, 대동문화연구원, 2013.

부록

〈표 18〉『하원리 호적중초』 목록

호적명	호적 표제	연도
1권	嘉慶 十五年 正月日 / 庚午式 / 下院里 / 戶籍中草	1810년
2권	嘉慶 十八年 正月日 / 癸酉式 / 中草 / 下院	1813년
3권	嘉慶 二十一年 丙子式 戶籍中草 / 第一左面 第三 下院里	1816년
4권	嘉慶 二十四年 正月 己卯式 戶籍中草 / 下院里	1819년
5권	壬午式 / 道光 二年 正月日 戶籍中草 / 第一左面 第三 下院里	1822년
6권	道光 五年 乙酉 正月日 戶籍中草 / 下院里	1825년
7권	戊子式 / 道光 八年 正月日 戶籍中草 / 下院里	1828년
	분실	1831년
	분실	1834년
8권	丁酉式 / 道光 十七年 正月日 戶籍中草 / 下院里	1837년
9권	庚子式 / 道光 二十年 正月日 戶籍中草 / 下院里	1840년
10권	癸卯式 / 道光 二十三年 正月日 / 下院里 戶籍中草	1843년
11권	道光 二十六年 下院里 丙午式 / 戶籍中草	1846년
12권	己酉式 / 道光 二十九年 正月日 戶籍中草 / 下院里	1849년
13권	壬子式 / 咸豐 貳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52년
14권	乙卯式 / 咸豐 五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55년
15권	戊午式 / 咸豐 八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58년
16권	咸豐 十一年 正月日 大靜縣 辛酉式 / 戶籍中草	1861년
	분실	1864년
17권	丁卯式 / 同治 六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67년
18권	庚午式 / 同治 九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70년
19권	同治 十二年 正月日 / 大靜郡 河源里 癸酉式 戶口中草	1873년
20권	丙子式 / 光緒 二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76년
21권	己卯式 / 光緒 五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79년
22권	壬午式 / 光緒 八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82년
23권	乙酉式 / 光緒 十一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85년
24권	戊子式 / 光緒 十四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88년
25권	辛卯式 / 光緒 十七年 正月日 / 大靜縣 河源里 戶籍中草	1891년
26권	甲午式 / 光緒 二十年 正月日 / 大靜縣 河源里 戶籍中草	1894년
27권	戊戌式 / 光武 二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898년
28권	光武 三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899년
	분실	1900년
29권	光武 五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901년
30권	光武 六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902년
31권	光武 七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903년
32권	光武 八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904년
33권	光武 九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905년
34권	丙午式 / 光武 十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戶籍中草 / 河源里	1906년
35권	丁未式 / 光武 十一年 正月日 / 大靜 左面 戶籍中草 / 河源里	1907년
36권	戊申 隆熙 二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908년

Abstract

Research of participants from Hawonri who Had Participated in Jeju Beopjeongsa Anti japanese Movement

:Concentrated on the Abstaract of Census Register

Han, Geum-soon*

This article contains mainly about Beopjeongsa anti-japanese movement which is the most notable anti japanese movement in jeju island and trying to link it to the Jeju abstract of the census register in Joseon dynasty period. Among the participants for Beopjeongsa anti japanese movement, participants from hawonlee's family line are founded in the abstract of census register.

This analysis is expected to be a elemental data to discover the character of participants by their status in their town. There were 20 people who has recorded their name as a participant. Out of these, 13 people has recorded on the hawonlee abstract of the census register. 4 of them are left out , 3 of them are unidentified and not possibly detected.

Look into the character of 13 people who has recorded on the abstract of the census register, there was a case that some people has recorded only one time up to 12 times. On the other case, some people has recorded by his father's name 5 times to 13times has detected. Look into the register term of

* Instructor, Department of History Jeju National University

family line, there were some family who has recorded from 1810's abstract of the census register volume 1.

Moreover, there were some family who has appeared in the middle or has recorded only one time. As a result of analyzing register status, including whether participants is recorded in the abstract or not,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the register status of participants's family line and when they started to live in hawonlee.

Moreover, family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marital relationship after the anti japanese movement also has detected. But, the true that abstract's census is not covering town's whole census has detected. Intended omission and fabrication of age also has detected.

Therefore, the original intention that if look into the records of participants from hawonlee it would be possible to detect their status in the town was a misjudgment.

If town's whole populations are being recorded on the abstract, some people whose not on the list would be detected as a neglected or nomadic people. But perpetual and intentional omission has made to think it's not possibly use it to the basis of decision.

Also if there's no missed census, by the period recorded on the register, it could be the meaningful data to detect town's natives.

But omissions of population and census has made to think it is impossible to use it to the basis to detect meaning for register period.

Hereby, recording rule and research for characters should be precede to this research.

Furthermore, omission from existing research is the evidence for they had omitted from the town, and analasys that poor people used to participated in anti japanese movement would be a hasty decision.

So, this research states that by looking into the status of abstract, generally analyzing character of the abstract should be preceded first.

It should be continued to the approaching to the beopjeongsa anti japanese movement by using the abstract of census register after the overall research again.

Key Words: census register of Hawonlee, Beopjeongsa
anti-japanese movement, omissions of population,
The principle of the census register in Joseon
dynasty period in Jejudo, Kim Yeonil, Kim
Sangeon, Oh Byeongyun, Lee Dalsaeng, Lee
Seunghin, Lee Chunsam

교신: 제주도 제주시 연동 2288번지
(E-mail: sanhana@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3. 7. 11.

수정완료일 2013. 8. 10.

게재확정일 2013. 8. 14.